

#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Hanbok Chima and the beauty of Hanbok

Kyoung-Hwa Lim\* · Soon-Che K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aimed both at observing the changes in Hanbok Chima composition from the 16th century until now, and attempting to outline the changes in aesthetic consciousness following these respective periods. For these objectives, the excavated costumes, the texts dealing with Hanbok, Hanbok Chimas that can easily be found in ordinary shops.

Recordings were made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ir length, width, and method of cutting, to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the waist of the Chimas, and to the partial needlework done on the hem and plaits.

This study showed that

1) The Chima's breadth and Changes in the length and width: For the Chimas of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whole fabric was cut in a vertical line but after 1970's, only the upper part fabric was cut in a slanted line. Today, slant-line cutting method is used for all fuller Chima, forming an A-line.

2)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the Chima waist: The Chimas of the first half of the Chosun period were shortened to about 2~3cm in the latter half. This was because specially designed girdles around the chest part were used around that time, to prevent chest exposure on account of the narrow jeogori and the shortened width. Vest-formed chima waist was introduced for more comfort and room and still being used for today.

3) Composition of Chimas: The Chimas fashione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Chosun dynasty were characterized by dart-style plaits or added plaits to allow for the comparatively shortened width of the Chima

front, as opposed to the rest of its breadth. jeobeum-hem was used, and this style was also donned by schoolgirls in their uniforms during the 1900s.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methods of adjusting the length of the Chimas gradually made way to more decorative styles of modulation.

4) Width of plaits: The respective width of plait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Chosun dynasty was narrowed down to about 0.7cm~2.5cm from 1.2cm~6.5cm. Today's Hanbok are designed to have plaits of 1cm or less.

5) Chima hem: In the Chosun period, additional fabric or the cloth of the Chima was used, allowing for a many-layered bottom hem; however, today's industry tends to stitch the sides of the outer and inner fabric, while sewing the bottom hem separately. Unlike the Western-style Chima sewing, the side hem is stitched before the bottom hem.

These change of composition changes in the esthetic sense of hanbok.

The silhouette of Hanbok went through many changes over time, from H-line to A-line style.

The cutting method of the side and bottom hems of the Chima during the Chosun period was freer and less limited than in current times, and that while the practical decorative esthetics of the Chosun period accentuated the natural flow of beauty, the elements to the changes in Chimas are the profusion of the ceremonial Hanbok dress, changes in the use of fabrics, the development of sewing machines, and changes in lifestyle.

## 한복치마 구성법의 변화와 한복의 미

임경화\* · 강순제

가톨릭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치마는 예로부터 저고리와 함께 갖추어 입음으로서 풍부하면서도 여유로운 한복의미를 형성해왔다. 치마의미를 형성하는 주체인 치마 구성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15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치마 구성법의 변화를 고찰하고, 시대에 따른 미의식을 규정해 보고자 한다. 이에 출토복식 보고서·한복교재에 기록된 치마와 한복매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한복 치마를 분석하여 치마폭과 너비·길이의 변화 및 재단방법, 치마허리 구성법의 변화·치마단, 치마 주름 등에서 나타나는 부분적 봉제법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1) 치마 폭과 너비, 길이의 변화 : 조선전기는 직물 폭을 그대로 이용하고 치마폭이 넓었으나 조선후기에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치마폭이 좁아졌다. 저고리 길이가 극도로 짧아져 치마를 가슴에 여며 입게 되면서 위는 사선, 아래쪽은 직선인 부분 사선 재단법이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가슴부위는 좁고 치마폭은 넓은 사선 재단을 이용하여 A-line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치마허리 구성법의 변화 : 조선 전기는 5~8cm의 넓은 치마 허리를 사용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2~3cm로 좁아지는데, 이는 짧은 품이 좁은 저고리로 인해 가슴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슴가리개의 형태를 별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조끼형 치마허리는 짧은 통치마의 착용과 더불어 활동의 편리성을 위해 등장한 것으로 현재는 대부분 조끼허리의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3) 치마의 구성법 : 조선전기는 특징적으로 치마의 앞 두 폭이 다른 폭보다 짧도록 다투형 주름이나 덧주름의 형태로 구성한 것이 있다. 또한 치마 전체를 접어 올린 접음단도 나타나는

데 이러한 형태는 1900년대 초의 여학생 교복에서도 보여지고 있어 치마 길이 조절을 위한 방법이 장식화로 변화되었다고 추정된다.

4) 주름 너비 : 조선 전기는 1.2cm~6.5cm로 다양하였으나 조선 말기로 가면서 0.7cm~2.5cm로 좁아지고, 현재는 1cm미만의 주름을 잡아 제작하고 있다. 생활한복이나 緞직물인 경우는 주름을 크게 잡기도 한다.

5) 치마단 : 조선시대에는 별도의 천을 덧대거나 치마감을 사용하여 치마 밑단이 여러 겹이 되었는데, 오늘날 업계에서는 걸감과 안감을 옆선만 박고 아래는 각기 따로 봉제한다. 치마단 바느질에 있어 옆선단을 먼저 박고 아랫단을 나중에 박는 봉제법은 서양복 치마와 다르다.

구성법의 변화는 한복 미감의 변화와 결부된다. 직선재단에서 사선재단으로의 변화는 치마 실루엣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전기는 긴 저고리에 치마를 허리에 둘러입어 H-line을 보이는 반면 조선후기는 짧고 품이 좁은 저고리에 풍성한 치마를 여러 형태로 둘러 입음으로써 항아리형 실루엣을 만들었다. 1970년대 이후 저고리길이는 짧고 치마폭이 넓게 퍼져 A-line을 형성하며 일상복보다는 예복으로 착용한다.

치마 옆선단과 밑단의 봉제법은 조선시대가 현재보다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시대의 실용적 장식미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흐름의미를 강조하였으나 오늘날 치마는 의례적 장식미를 변화하여 인위적 형태성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치마구성의 변화의 요인으로서는 한복의 예복화, 원단 사용의 변화, 재봉기의 발달,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구성과 연결된 한복의미는 자연적 흐름의미, 본질적미, 실용적 장식미가 인위적 형태성, 기교적 편의적미, 의례적 장식미로 변화되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